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

Vol.03 범죄예방 편



CONTENTS

-
- 01 SAFETY GRAPHIC**
안전그래픽으로 보는 세종시 범죄 현황

 - 02 SAFETY NOW**
안심할 수 있는 동네,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안전

 - 03 INTERVIEW**
세종지방경찰청 생활안전수사과 유희영 경위

 - 04 SAFETY CHECK**
건축물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화 확대

 - 05 SAFETY TIP**
세종시의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 06 SAFETY MANUAL**
범죄로부터 안전하려면 기억해두세요

SAFETY GRAPHIC

안전그래픽으로 보는 세종시 범죄 현황

범죄를 알고 공간을 알면 '안전'이 튼튼해진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은 범죄에 대입해도 들어 맞는 말일 것이다. 어떤 범죄가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지 알면 피해가고 돌아갈 수 있으니 말이다. 이번 호에서 세종시 범죄현황을 소개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범죄를 알고 우리 동네를 알면 시민 스스로 예방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시에서는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료 출처 | 「2018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대전세종연구원

지역안전지수

[2017년 통계 기준]

행정안전부는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의 7개 분야별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2018년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다.

안전등급



안전등급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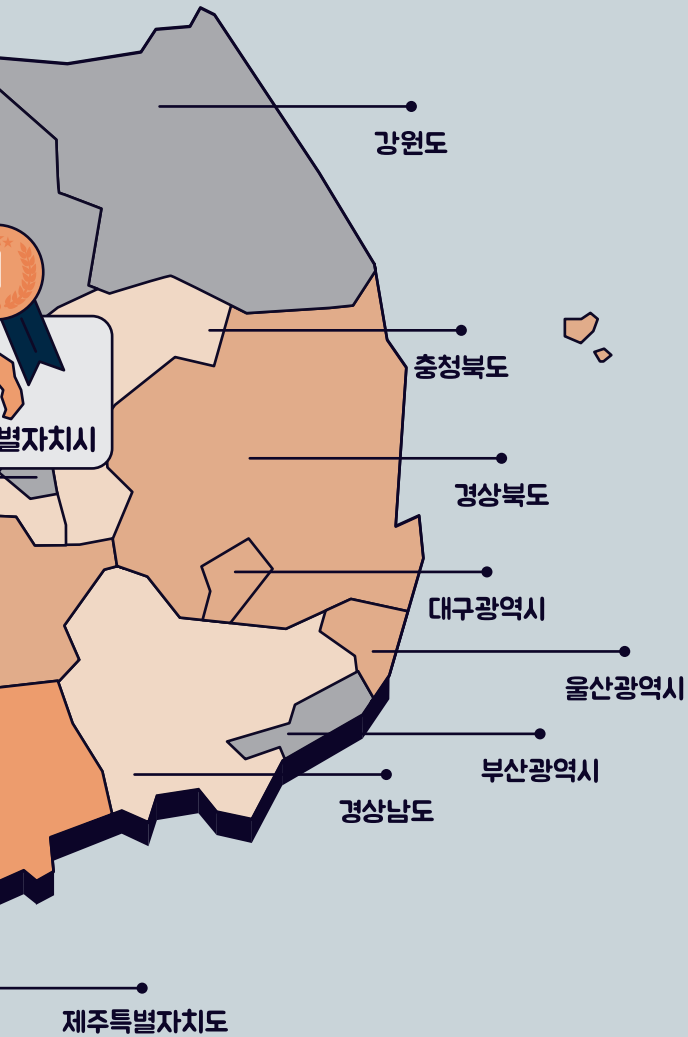
세종시 장소별 범죄발생 현황

[2017년]

1위 노상	2위 기타	3위 공동주택
4위 서비스업	5위 상점	



분야 안전지도



세종시 범죄분야 안전지수

[최근 4년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세종시는 범죄 안전지수
4년 연속 1등급



세종시 요일별 범죄발생 현황

[2017년]

月	火	水	木	金	土	日
219건	214건	201건	201건	227건	216건	188건

세종시 시간대별 범죄발생 현황

[2017년]

새벽 0시

197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

새벽 4시

25건

가장 적게 발생하는 시간

가랑비에 옷 젖지 않도록

범죄로부터 안전하려면 기억해주세요.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는 견잡을 수 없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무심코 열어 둔 창문, 아무렇게나 버린 택배 상자가 범죄의 표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지 않도록 사소한 생활 습관부터 꼼꼼히 점검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범죄가 발 붙일 곳은 없을 것입니다.

범죄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속 안전한 습관을 소개합니다.

달아도 달아도 걱정이라면 한번 더 잠그자



방범용품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지키세요.

집안의 문이라는 문은 모두 단속했는데도 안전이 걱정된다면 창문 열림 경보기, 창문 스톱퍼, 안전 쇠고리, 락힌지(Lock hinge) 등의 방범용품을 사용해 보세요. 창문 열림 경보기의 경우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에 문의하면 무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배달되는 신문, 우유 등을 잠시 중단시켜 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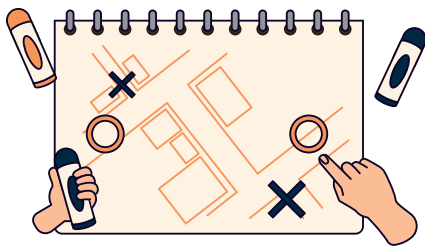
무심코 버린 상자 속에 담긴 안전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각종 고지서나 우편물을 쌓아두면 집이 비어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용 내역 등 자세한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고지서는 가급적 이메일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외에도 택배나 우편물을 버릴 때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확인한 후 버리도록 하세요.

지도로 확인하는 우리동네 안전



우리동네 안전지대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가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동네 안전지도'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 아이가 자주 다니는 동선을 함께 지도로 만들어 보면서 위험한 구간과 안전한 공간을 구분하는 동안 범죄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수칙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생활안전지도 (www.salemap.go.kr)를 참조하면 교통안전부터 치안안전까지 다양한 정보를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 안전하게 지켜요



지문을 사전등록하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평소 아이에게 부모의 연락처를 외울 것, 부모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 등 어린이 대상 범죄를 예방수칙을 교육해 주세요. 그래도 마음이 안 된다면 안전Dream 사이트(www.sale182.go.kr)를 통해 아이의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두면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은 물론 지적장애인과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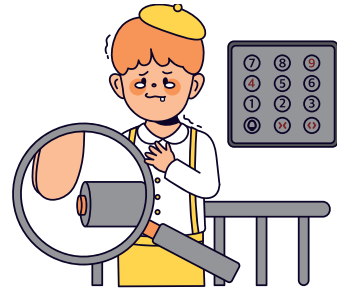
로코 영화 BGM이 호러 영화 BGM으로?!



밤길을 걸을 땐 이어폰 착용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이어폰으로 음악을 틀으며 걸으면 주위 소음을 들을 수 없어 위험합니다. 자동차 소리는 물론 뒤에서 다가오는 사람들의 인기척 등은 음악처럼 아름다운 소리는 아니지만 안전한 보행을 생각한다면 꼭 들어야 하는 소리입니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한순간에 호러 영화로 돌변하지 않게 하려면 이어폰 볼륨은 줄여주세요.

침착하게 누르면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에는 숨겨진 비상벨도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탑승 전에는 주위를 확인하고, 수상한 사람이 있을 때는 함께 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상한 사람과 함께 타게 되었을 때는 바로 다음 층에 내리세요. 내리는 것이 여의치 않거나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벨을 누르세요. 최근 지어진 고층건축물에는 엘리베이터 손잡이 양 끝에 비상벨이 숨겨져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단, 아이들이 장난삼아 누르지 않도록 주의시켜 주세요.

어디서든 위험을 감지하면 울리는 비상벨



위험을 느낄 때 비상벨을 누르세요.

세종시의 주요 외부 공간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일환으로 설치 운영 중인 비상벨은 범죄 취약 공간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 공공 화장실, 지하도,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CCTV, 인근 경찰서와 연계되어 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터치 한 번으로 보호 받는 '112 긴급신고 앱'



긴급 상황일 땐 '112 긴급신고 앱'을 이용하세요.

'112 긴급신고 앱'은 긴급 상황에서 전화 신고가 어렵더라도 터치 한 번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신고는 물론 사진을 첨부한 문자 입력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의 위치 정보 및 입력해 둔 개인정보를 112신고센터로 전송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통화를 가장하여 위급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알람 기능도 있어 미리 설치해두면 든든한 앱입니다.

감미로운 음악으로 범죄를 예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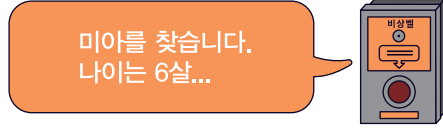
세종시 CCTV 비상벨 음악 제공 서비스

세종시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CCTV 비상벨을 활용한 음악 제공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도, 폭력 등 5대 강력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일몰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런던에서는 범죄가 빈번한 40여개 지하철역에 클래식 음악방송을 시행하여 18개월 동안 강도 33%, 역무원 공격 25%, 기물파손 37%가 줄어들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에도 음악 제공 서비스 시범 운영 지역에서 단 한 차례의 강력범죄도 발생하지 않아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의 우수사례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세종시의 CCTV 음악 제공 서비스, 무엇이 좋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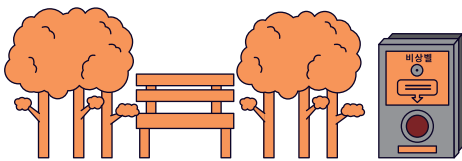


-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VoIP 비상벨*을 활용하여 범죄 취약 시간대에 음악을 제공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공공시설물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범죄예방 음악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별, 시간대별로 미아 찾기, 주변 시설 이용 안내 등 공익 방송을 진행하여 활용도를 높입니다.

*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인터넷전화) 비상벨: CCTV 폴에 설치된 호출벨로, 시민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누르면 도시통합정보센터 관제요원과 연결, 112·119 등에 도움 요청



- 취약 시간대 범죄 발생이 예상되는 산책로, 공원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클래식 음악을 제공합니다.

CCTV 음악 제공 서비스 설치 현황 [단위: 개소]

신도시지역

방축전	제천	고운뜰	호수공원	금강수변 공원	3생근린 공원	3생 통학로
12	10	1	27	16	5	2

읍면지역

골목길	근린공원	마을입구	공영주차장	통학로	합계
5	6	7	1	9	101



SAFETY NOW | 안심할 수 있는 동네,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안전

도시에 안전을 입히는 디자인,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뉴스를 보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하루에도 별별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특히 강력범죄 관련 뉴스를 마주하게 되면 그야말로 벌일 없이 사는 것이 희망 사항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지경이다.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강력범죄는 점점 흉폭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범죄로 인한 불안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경찰 및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총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강력범죄, 성범죄, 절도 등 시민의 체감 안전과 밀접한 범죄는 여전히 증가 추세다. 또 강력범죄의 증가는 단순히 숫자의 증가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이미지 훼손 및 지역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찰은 물론 행정 등 여러 기관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사회안전 인프라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더해지면서 도시공간에서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고 시민들의 안정감을 높이기 위한 정책 또한 늘고 있다. 공동주택단지, 학교, 도로, 상가, 사무실, 공원 등 도시공간에서의 범죄발생 기회를 줄이고, 시민이 범죄에 대해 안심·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정책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여러 정책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다.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범죄에 대한 물리적 도시환경을 조성·개선하여 잠재적 범죄자의 입장에서 검거의 위험을 증가시켜 범행의 기회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종합적 범죄예방 전략을 일컫는다.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경제적, 기능적, 미학적 논리를 우선하여 범죄에 취약한 환경적 요인을 제공해 온 도시·건축 환경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2012년부터 국토교통부가 도시의 공원 및 녹지 등을 조성 시 계획 단계부터 범죄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범죄예방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힘입어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도입한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의 마을안전센터 소금나루, 대전시 대덕구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프로젝트, 대구시 동구 신서동의 엄마품길 등이 효과적인 범죄예방 사례로 평가 받으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 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면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입지, 지역특성, 인구,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등 일반적인 현황과 범죄 현황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세종시에서 발생하는 범죄 특성을 꼼꼼히 파악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의 제작 자료로 활용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특성상 건축, 도시,

경찰학, 범죄학, 산업보안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 정책 결정자 간의 소통과 협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정책 마련과 사업 추진 시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썼다. 여기에 2016년부터 시행한 범죄예방 음악서비스, 비상벨, 자율방범대 범죄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적용해 한층 탄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세종시의 이 같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는 안전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안착될 경우 세종시민의 생활밀착형 안전마을을 만드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은 세종시의 모든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방범의식 고취, 방범장치 업그레이드, 건축물의 신축·리모델링·대규모 단지개발·공공장소 안전 증진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 가능하다. 또한 세종시민이 지역 안전을 위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자체적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글 | 유정(오세이프 에디터)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개념과 원리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지 않게 하는 방법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주변을 잘 볼 수 있고 은폐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자연적 감시', 외부인과 부적절한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접근통제', 공간의 책임의식과 준법 의식을 강화하는 '영역성 확보'와 자연적 감시와 연계해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는 '활용성 증대' 그리고 안전한 환경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 5가지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이 원리는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심리학 이론과 사소한 것이 큰 사고를 야기한다는 법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과연 어떤 이론과 법칙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지 함께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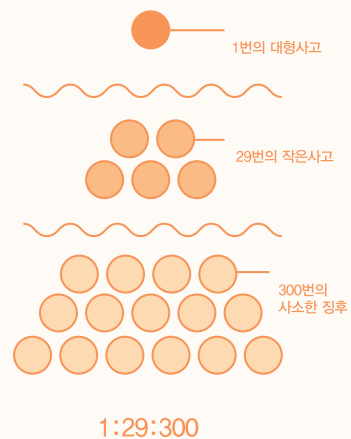
깨진 유리창 이론 (Broken Windows Theory)

-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J. Wilson)과 조지 켈링(G. Kelling)이 1982년 3월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s)'이라는 글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 낙서 또는 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사소한 무질서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심리학 이론이다.
- 사회적·물리적 무질서와 범죄의 관련성에 관한 이론이며, 중범죄를 중심으로 한 사후 진압적 활동을 지양하고, 기초 질서 위반행위 등을 중심으로 사전 억제 및 예방적 활동들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 또한, 공식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춘 범죄예방을 주장한다.
- 1994년 뉴욕시장 루돌프 줄리아나는 우범지역에 본 이론을 적용하여 사소한 경범죄에도 경찰을 투입하였으며, 이에 절망적인 뉴욕의 치안 상황을 개선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인리히 법칙 (Heinrich's Law)

- 하인리히 법칙은 1920년대 미국의 여행 보험 회사 관리자였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75,000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발견한 사실로,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법칙이다.
- 큰 재해가 발생했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발생했고, 운 좋게 재난은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사고가 생길 뻔한 사건이 300번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정리한 것이다.
- 하인리히 법칙을 정리하자면 '첫째, 사소한 것이 큰 사고를 야기한다', '둘째, 작은 사고 하나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연쇄적인 사고로 이어진다고 간추릴 수 있다.
-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면밀히 살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면 대형사고나 실패를 방지할 수 있지만, 징후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INTERVIEW | 세종지방경찰청 생활안전수사과 유희영 경위

과학으로 범죄를 예방해 행복도시를 만드는 세종지방경찰청 범죄예방진단팀

범인을 잘 잡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도시가 성장하는 속도만큼 인구 수 또한 빠르게 증가하는 세종시에는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적의 치안 환경을 만들어가는 세종지방경찰청 범죄예방진단팀이 있다. 범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예방하는 범죄예방진단팀의 유희영 경위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프리랜서 작가 이윤숙(이하 이) | 범죄예방진단팀이 꾸러지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유희영 경위(이하 유) | 과거 경찰 활동의 패러다임은 '검거와 진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발생한 범죄를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피해 회복은 어렵습니다.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국민 체감 안전 향상을 위한 경찰의 관심과 노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2016년 6월 전국 경찰서에 범죄예방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범죄예방전담경찰관(CPO, Crime Prevention Officer)제도가 시행되었고, 범죄예방진단팀도 꾸러지게 된 것입니다.

이 | 범죄예방진단팀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유 | 범죄예방진단팀의 주된 업무는 범죄 분석, 범죄예방 기획, 지역사회 경찰 활동입니다. 먼저 '범죄 분석' 분야에서는 관할구역의 범죄 현황과 관련 요인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범죄의 특성과 경향을 파악합니다. 특히 범죄 장소·시간·건수 등의 단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범죄에 포함된 다양한 요인들, 예를 들어 범죄가 발생한 물리적 환경 요인, 지역의 인구 사회학적 요소, 유사한 범죄사례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범죄의 과정을 살펴보고 인과관계를 밝히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근거를 바탕으로 경찰 활동, 특히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지역경찰서의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기획하는데요. 이 같은 과학적인 접근은 한정된 인력으로 최적의 치안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안전 증진 사업에 전문적이고 정확한 범죄분석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범죄예방사업을 추진하게 합니다.

이 | 세종지방경찰청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유 | 범죄예방진단팀은 각종 치안데이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세종시의 범죄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범죄예방 정책으로 녹여내고 있습니다.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 1인 가구 집중 지역이나 원룸촌 등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진단해 범죄예방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역 경찰의 순찰노선·시간대를 조정해서 취약지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공중화장실의 불법카메라 탐지와 비상벨 관리, 공원·공영주차장·대형마트의 범죄예방환경 진단과 개선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리 대상지 이외에도 도시건설이나 인구증가에 따른 범죄사각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범죄예방사업은 물론 추가 경력 투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 세종시의 또 다른 파수꾼을 자처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같은 협력단체들과는 어떻게 공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 | 지역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율방범대나 생활안전협의회, 자전거수찰대 같은 협력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치안 환경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고요. 합동순찰 같은 공동체 치안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순찰에는 한국영상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들도 참여해 지역사회 전반의 치안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 범죄예방진단팀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유 | 선진국에는 범죄예방전문가나 범죄예방시설 인종 같은 다양한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범죄예방분야 전반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우리 경찰도 범죄예방진단팀 제도나 범죄예방환경설계 정책 등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착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직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응원과 범죄예방 관련 법제화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 가정이나 개인이 실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유 | 의식하고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의 효과는 더욱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젊은 여성층과 아이들이 많은 세종시에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방범창이나 보안 출입문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출입문 개폐 시 주위를 반드시 살피고, 비밀번호 교체 같은 보안 관리도 생활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휴대폰에 112신고앱을 설치하거나, 주로 이용하는 길의 비상벨, 방범용 CCTV 위치(세종시 도시통합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상가나 아파트가 많은 우리 지역 특성상 주차장 내 범죄 우려가 큰 만큼 철저한 차량 시정 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 마지막으로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에게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 |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22만 명이 넘는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관 1인 담당 인구가 전국 평균 519명보다 55%가 넘는 809명에 이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안이 유지되는 걸 보면 세종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험한 상황에 놓인 아이를 발견하면 내 아이가 아니어도 먼저 달려가 손을 잡아 주고 도와주는 시민들을 많이 봤고요. 공공장소에서 서로 배려하고 질서를 지켜가는 모습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세종 시민들의 이런 의식과 연대의 힘은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 세종시의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시민들의 마음이 계속되길 기대하며 범죄예방진단팀인 저 역시도 시민들의 힘을 얻어 사명감과 전문성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치안선진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안전해서 더 행복한 세종시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군분투 중인 세종지방경찰청 범죄예방진단팀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세종시를 행복도시로 만들어가는 그들의 활약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세종 시민들의 안전 의식과 연대의 힘 또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취재 | 이윤숙(프리랜서 작가) 사진 제공 | 대전세종연구원

SAFETY CHECK

**안전한 생활환경이 더 넓어진다!
건축물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화 확대**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 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가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적용하고, 예방 기준도 추가적으로 개선하였다. 특히 500세대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에 추가하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100세대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되,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여성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보도자료(2019.07.29)

정리 | 오호라 (오세이프 에디터)

<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

구분	내용	비고
대지출입구	영역성 확보, 자연적 감시 고려, 연속적인 조명 설치	의무
담장	사각지대 고려 및 투시형 설치 권장, 조경수 일정 간격 식재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자연적 감시, 놀이터 주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경비실	조망 가능구조 고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무인 택배보관함 설치 권장	"
주차장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조명 설치	"
조경	주거 침입 이용 방지	"
건축물 출입구	접근통제시설 설치, 자연적 감시 고려 또는 반사경 등 대체시설 설치, 조명 설치	"
세대현관문 및 창문	창문·출입문은 침입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 사용	"
승강기, 복도, 계단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외벽	배관 등을 이용한 침입 방지	"
건축물 측면, 뒷면 등	조명 설치 및 반사경 등 대체시설 설치	의무(신설)
감침용 기기	전기·가스·수도 등 감침용 기기는 세대 외부 설치(원격감침 가능 시 제외)	의무(신설)
방범 시설	창문에 방범시설 설치 시 개폐가 가능한 구조의 시설 설치	권장(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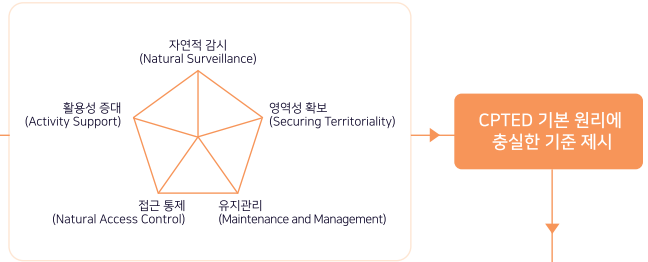
안심하고 행복을 누리는 도시 세종시의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사람이 먼저인 행복도시, 세종특별자치시는 모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공동체를 만들고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추진합니다. 세종시 전 지역의 일반 현황과 범죄 현황 등 기초 자료를 분석하고, 도시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습니다. 세종시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개발은 도시환경을 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도시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안전미를 조성의 토대를 다지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줄 세종시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소개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작성
- 범죄예방 환경설계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 도시기본시설 전 분야에 걸친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적 디자인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
- 범죄 주요 발생지역인 상업지역, 주거지역 및 주요 범죄 패턴 등에 대응하는 가이드라인
- 중앙정부(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및 경찰청에서 제시하는 범죄예방
- 도시기본시설 전 분야에 걸친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 환경설계 5대 원리(자연적 감시·접근통제·영역성 확보·활용성 증대·유지관리)를 기본적으로 한 가이드라인



CPTED 적용을 위한 디자인적 가이드라인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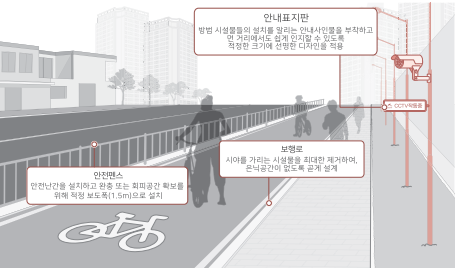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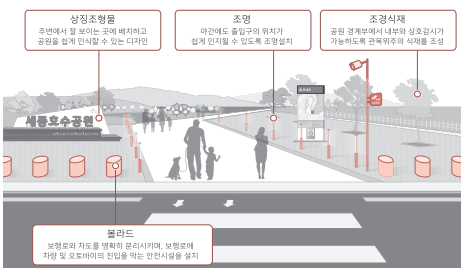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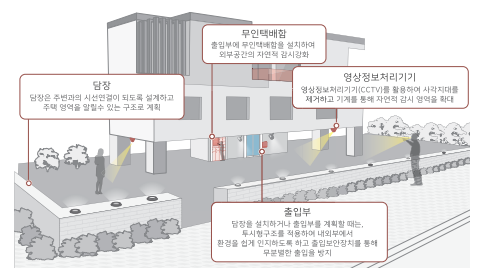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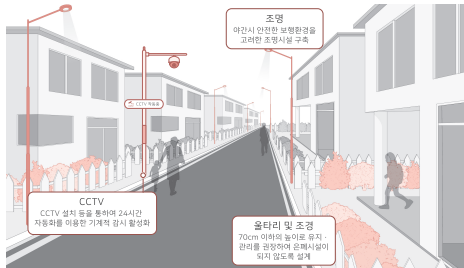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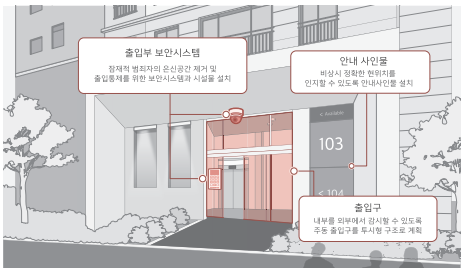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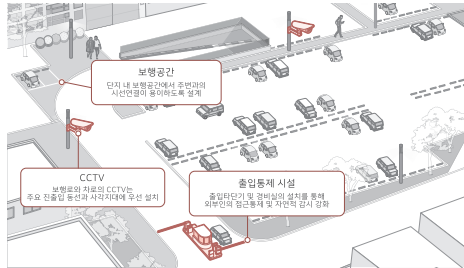
- 친환경적, 미래지향적 모델 제시
- 도시 이미지 형성에 부합할 것
- 주변과의 조화를 살린 색채계획 적용
- 시각적, 심리적 개방감 확보를 위한 구조, 재료 사용
- 크기와 형태의 안전화 및 인체공학적 요소 고려
- 자연을 훼손하지 말 것
-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 미려하고 세심한 마감처리
- 공공시설을 조화를 기반으로 기능성, 편리성 고려
- 시설물 설치 시 점유면적 최소화를 통한 보행성 확보

CPTED 적용을 위한 시설 분류

- 공통사항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교육 및 연구시설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시설
- 공공문화 복지시설
- 상업시설
- 공공공간
- 준주택

공간별 주요 가이드라인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공공공간 등



*세종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종시청 안전정책과(☎044-300-3613) 또는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042-530-356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COVER STORY

시민들의 '안심'을 설계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는 급증하고 있으며, 삶의 질에 대한 여러 요인 중 범죄 발생과 관련된 문제는 생활안전과 연계되어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호순 사건, 조두순 사건, 강남역 문지마 살인사건 등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흉악범죄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대해 시민들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도입,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등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세종경찰 역시 범죄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CPTED 사업, 골목 안심길 순찰, 지능형 CCTV 및 비상벨 설치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의식하고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예방의 효과는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출입문을 열고 닫을 때에는 반드시 주위를 살피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 그리고 주요 이용하는 길에 설치된 비상벨과 CCTV를 미리 알아두는 것처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지속적인 범죄의 감소는 지자체와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이 더해질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의 세 번째 이야기, '범죄예방' 편을 통해 한층 더 안전하고 행복한 세종시가 되길 기대합니다.



QR code

홈페이지(sejong.go.kr)와 QR 코드로도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발행	세종특별자치시	편집위원	심준우 / 민경환 / 유정
기획	이형복(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장)	에디터	김슬기 / 오하라
디자인·제작	안전디자인연구소 오세이프	취재	이윤숙(프리랜서 작가)
발행일	2019년 9월 1일	디자이너	오수현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는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위원회,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안전디자인연구소 오세이프(OSAFE)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매거진의 발간으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안전에 관해 꼭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세상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만들고자 합니다.

